



“손 잘 씻어야 신종플루 예방하죠”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신종플루가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13일 북구 중흥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신종플루 방심 지나치다

광주·장성 잇단 발병 속 보건당국 “대유행 가능성 없다” 느슨

잠잠했던 신종플루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확진 및 의심환자가 나오는 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온 이후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 충남 공주, 대전, 경북 포항, 대구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어 광주에서 옮겨올 들어 처음

으로 초등학교 1명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장성에서도 교사와 초등학생이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올해 신종플루 유행은 작년의 10분의 1 규모로 대유행이 재연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보건당국의 태도는

각급 보건소나 초·중·고교, 가정 등 의 보건 체계를 느슨하게 해 감염의 조기 차단 실패는 물론 자칫 확산을 방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장성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황룡면 월평초교에서 33명의 학생이 집단 고열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중 6학년 진모(13)군이 간이검사서 신종플루 양성반응을 보여 격리 입원했으며, 13일 담양교사 양모(52)씨도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양성판정을 받아 격리조치됐다. 나머지 32명의 학생 중 증상이 심해 검사를 받은 18명의 학생들은 음성반응이 나와 귀가 조치됐다.

이에 앞서 12월에는 광주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 이날 광주시 동구 운림동 양모(11)양은 집에서 복통과 고열 증상을 보이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0일에도 초등학생 2명이 발열증세를 보여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지난 10일엔 광주 북구청의 민

코스피 연중 최고 2000돌파 초읽기

코스피지수가 연고점을 1,997선까지 끌어올리며 2,000시대 앞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0.45포인트(0.53%) 오른 1,996.59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1월 7일(2,043.19) 이후 최고치다. 지수는 이날 미국 증시의 상승 소식에 전 거래일보다 7.28포인트(0.37%) 오른 1,993.42로 개장, 출발과 함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매수에 연고점을 서서히 높여나갔다. 개인이 738억원, 외국인이 392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나홀로 ‘팔자’로 모두 906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시가총액도 1109조1157억원까지 불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93만원까지 오르며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주가 100만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전체적으로는 상한가 5개를 포함 458개 종목이 오르고 하락가 없이 345개 종목이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코스피지수의 상승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4.21포인트(0.83%) 오른 513.41로 마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알림

DJ.DOC 전국투어 콘서트

12월31일 밤 8시 순천팔마체육관

‘더 이상 유쾌한 콘서트는 없다.’ 광주일보사는 12월의 마지막 날 ‘DJ.DOC 전국투어 댄스 파티’를 개최합니다. 뛰어난 무대 매너로 무장한 DOC의 공연은 전 관객을 춤추고 노래하게 만드는 신명난 콘서트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머피의 법칙’, ‘DOC와 춤을’, ‘Run to you’ 등 DOC의 히트곡들과 ‘나 이런 사람이야’ 등 6년만에 발매한 새 음반 수록곡들을 들려줍니다. 1년 동안의 스트레스는 날려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해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 예매: 인터파크, 티켓마루, 광주은행
- 문의: 1588-0766
- 주최: 광주일보사
- 주관: 공연마루

光州日報社

광주시 ‘區간 경계조정위’ 구성키로

姜시장, 도시철도 2호선 방식·노선 재검토 지시

강운대 광주시장은 13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과 추진시기, 노선 등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구간 경계조정위원회’도 구성돼 시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결과 BC(비용대비편익분석) 0.997, 종합분석 철저히 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영호기자 yongho@

강 시장은 이어 “현재의 지상고가 건설 방식은 국내의 도시에서 미관이나 일조권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노면전철이나 지상 모노레일 등 다양한 방식을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시기도 광주시의 재정 여건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일정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변경과 함께 착공시기가 미뤄지거나 광주U대회를 대비해 일부 구간만 착공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위해 도시철도와 대중교통 분야 전문가, 광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시민 편의 증진 ▲5개 자치구 간 균형있는 발전 ▲국회의원 정수 유지 등을 위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 정거장특위를 통한 선거구 유지에 사실상 불가능하며, 내년 중반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전 전문가, 5개 자치구 관계 시의원, 주민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

즐거움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12월이 할인으로 풍성해집니다.
 3444
 객실 +朝食(2인) + 미니케이크 증정 ₩100,000
 (한성호텔이벤트) + 와인서비스 ₩55,000
 12월 12일~13일, 19일~20일, 26일~27일, 28일~29일
 12월 12일~13일, 19일~20일, 26일~27일, 28일~29일
 예약문의 : 062-227-8500
 www.hotelshin.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12월 17일~22일
 [가교] 원시접수 12월 17일~22일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악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www.2013expo.or.kr
 지구의 정원, 순천만

ECO GEO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2013.04.20 - 10.20